

예술심리치료사의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잔류의도의 차이분석

이은희, 고정훈*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Analysis of differences in self-efficacy and intention to remai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rtistic psychotherapists

EunHee Lee, JeongHoon Ko*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심리치료사의 특성에 따라 주요변수(자기효능감, 잔류의도)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강원도내 예술심리치료사 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성별에 따라, 주요 변수인 자기효능감, 잔류의도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예술심리치료사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 잔류의도는 모두 남자보다 여자가 더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예술심리치료사의 결혼상태에 따라 주요 변수인 자기효능감, 잔류의도 요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예술심리치료사의 근무경력에 따라, 주요 변수인 자기효능감, 잔류의도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3년-5년 미만 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예술심리치료사의 자기효능감과 잔류의도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he main variables (self-efficacy, intention to remai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rt psychotherapis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182 art psychotherapists in Gangwon-do. For the analysis method,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d one-way ANOVA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First,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art psychotherapist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ain variables, such as self-efficacy and intention to remain. In particular, in terms of self-efficacy and intention to remain, the average score was higher in women than in me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ain variables such as self-efficacy and intention to remain according to the marital status of art psychotherapists.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th self-efficacy and intention to remain according to the work experience of art psychotherapists. In particular, the highest level was found in the group under 3 to 5 years.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basic data for the preparation of measures to enhance self-efficacy and intention to remain for art psychotherapists.

Keywords : Artistic Psychotherapist, Self-Efficacy, Intention to Remain, Marital Status, Work Experience

본 논문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eongHoon Ko(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

email: 1052leh@naver.com

Received July 26, 2021

Revised August 20, 2021

Accepted September 3, 2021

Published September 30,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산업화화 의과학의 발달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반면 코로나19사태 및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혼란에 빠져 다양한 직업과 직무의 지속여부의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내담자의 상황과 고민을 경청하며 집단내의 과업수행을 감당하는 예술심리치료사의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잔류의도는 중요한 변인으로 대두된다.

예술심리치료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회화나 조각등의 시각예술은 인류의 집단적 역사와 생각, 감정과 염원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왔다. 또한 초기의 역사 기록에서는 미술을 보상, 변화, 재활의 목적으로 활용하여 정신적, 신체적, 영적인 행복을 위한 치유적 기능으로 사용되었으며, 신체를 위한 치료제의 역할로도 예술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초기 중동문화에서는 여러 색깔의 양모를 매체로 질병에서 자신을 보호하였고, 미국 남서부의 원주민들은 질병을 물리치기 위한 수단으로 모래 그림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미술은 기쁨과 슬픔, 승리와 정신적 외상 등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기록하고 묘사하는 표현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져 왔다[1].

따라서 예술심리치료사는 심리분석을 위해 예술치료로써의 예술을 의사소통의 매개체가 되어 내담자의 부정적인 감정, 마음을 풀어주고 예술창작을 통해서 내담자의 사물의 통찰력을 높이는 정서를 정화하는 효과를 가지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2].

이와 같이 실제적인 예술심리치료사의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통해 살펴보면 조혜경 박사(2020 교육학 박사 학위 취득, 현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의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겸임교수로 예술심리치료 연구 및 강의 큰사랑드림 콘텐츠 연구소에서 예술심리치료에 대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 사랑의 교실 지정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3], 진행하고 있는 것은 다음 Table 1과 같다.

이는 예술심리치료사의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으로 대두된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행하는 인간행동의 주된 근원으로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삶은 개인의 효능감에 따른 신념에 의해 유도된다는 것이다[4].

이는 또 다른 관점에서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개인의 특정 행동이나 맡은 직무에 대한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생각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 또는 확신으로 주장하기도 한다[5].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수행이나 변화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6].

이와 같이 예술심리치료사의 직무에서 자기효능감과 함께 대두되는 변인은 잔류의도로 볼 수 있다.

잔류의도는 예술심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조직에 계속 남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으며[7], 서비스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서술적 조사 연구에서 살펴보면 대상자의 직무요구의 역할명확성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회복경험이 높을수록, 직무착근도와 직무착근도의 적합성, 연계, 희생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객실승무원 대상으로 한 연구에도 대상자의 직무요구의 역할명확성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회복경험이 높을수록, 직무착근도와 직무착근도의 적합성, 연계, 희생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8].

따라서 잔류의도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사의 잔류의도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여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직의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확인된 간호사의 잔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외의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사가 병원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잔류의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9].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성별과 결혼상태, 근무경력에 따른 주요변수인 자기효능감, 잔류의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존연구에서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공감능력, 직무소진에 대한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지만,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사례가 부족한 문제점이 대두된 상황에서 예술심리치료사의 개인변인과 자기효능감 직무변인으로 잔류의도와 효과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술심리치료사의 특성에 따른 개인변인인 자기효능감이 직무변인인 잔류의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예술심리치료사들의 예술심리분야의 역할과 중요성이 모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예술심리치료사들이 겪는 우울감과 직무스트레스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심리치료사의 특성에 따라 자기효능감 및 잔류의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

Table 1. Art Psychology Program and Content

Program name	Art Psychology Program and Content	Activity pictures
Art psychology occupational therapy	Analysis through art and art psychotherapy work program according to stat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itial interview through H.T.P technique ·Various occupational therapy programs such as strengthening concentration and relieving stress (pointillism, hedgehog making, collage, etc.) 	
Exercise therapy	Physical activity area strengthening and rehabilitation program through exerc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derstanding body structure ·Learn a sense of balance ·Knowing exercise therapy in daily life ·Social development program guidance 	
Craft therapy	Small and large muscle development, functional recovery and aesthetic development program through craf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play technique that satisfies the five senses of infants and toddlers ·Aesthetic enhancement and anxiety relief program for adolescents ·Degenerative sensory recovery program for young and old ·Functional recovery program for the disabled 	
Music therapy	A program to relieve depression and anxiety and improve empathy through mus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program to listen to, sing, and participate in music that enhances stability ·Program to relieve stress and develop empathy with percussion instruments 	
Forest, horticultural therapy	A program to restore the balance of life and improve stability through forest, nature, and horti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program that can heal and improve peers, family, and social support by raising succulents, arranging flowers, walking in the forest, and experiencing ecology 	

Reference : Dr. HaeKyoung, Cho, Great love dream contents research institute

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성별에 따라 자기효능감 및 잔류의도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예술심리치료사의 결혼상태에 따라 자기효능감 및 잔류의도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예술심리치료사의 근무경력에 따라 자기효능감 및 잔류의도는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01월 10일부터 2020년 03월 05일까지 강원도의 예술심리치료사 1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 총 200부의 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182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3문항, 자기효능감 8문항, 잔류의도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결혼상태, 근무경력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은빈[10]이 사용한 측정도구는 총 8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잔류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대주[11]가 사용한 측정도구는 총 8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자기효능감의 전체 신뢰도는 .931로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잔류의도의 신뢰도 또한 .903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최소한의 수준인 .60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구체적인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α
Self-efficacy	8	.931
intention to remain	8	.903

2.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 α 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으며, 예술심리치료사의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자기효능감, 잔류의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 및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예술심리치료사의 성별은 남자 40명(22.0%), 여자 142명(78.0%)으로 남자 보다 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99명(54.4%)으로 미혼 83명(45.6%)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3년 이상-5년 미만인 75명(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상-3년 미만이 54명(29.7%), 5년 이상 53명(29.1%) 순으로 확인되었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Total(N=182)	
		Frequency	Ratio(%)
Sex	Male	40	22.0
	Female	142	78.0
Marital status	Single	83	45.6
	Married	99	54.4
Work experience	1-3 years	54	29.7
	3-5 years	75	41.2
	5 years or more	53	29.1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3.2.1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술통계

예술심리치료사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 요인의 평균은 최소값 2.75, 최대값 5.00을 보였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M=4.20으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n self-efficacy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Total	182	2.75	5.00	4.20	.55

3.2.2 잔류의도에 대한 기술통계

예술심리치료사의 잔류의도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잔류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잔류의도 요인의 평균은 최소값 2.63, 최대값 5.00을 보였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M=4.03으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잔류의도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n intention to remain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Total	182	2.63	5.00	4.03	.55

3.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예술심리치료사의 자기효능감 요인과 잔류의도와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 요인과 잔류의도 요인은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858, p<.01$).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Correlation between key variables

Classification	Self-efficacy	Intention to remain
Self-efficacy	1	
Intention to remain	.858**	1

* $p<.05$, ** $p<.01$

3.4 예술심리치료사의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 분석

3.4.1 예술심리치료사의 성별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 분석

예술심리치료사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변수의 등분산 검정은 자기효능감($p=.118, p>.05$), 잔류의도($p=.092, p>.05$) 모두 p값이 .05보다 크게 나타나 등분산이 가정되었다.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t=-5.111, p<.001$), 잔류의도($t=-5.183, p<.001$)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술심리치료사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 잔류의도는 모두 남자보다 여자가 더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술심리치료사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 자기효능감, 잔류의도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Difference analysis of key variables by gender of art psychotherapists

Factor name		Frequency (N)	Average (M)	Standard deviation (SD)	Equal variance test (p)	t/p
Self-efficacy	Male	40	3.83	.70	.118	-5.111***
	Female	142	4.30	.46		
Intention to remain	Male	40	3.65	.60	.092	-5.183***
	Female	142	4.13	.48		

* $p<.05$, ** $p<.01$, *** $p<.001$

3.4.2 예술심리치료사의 결혼상태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예술심리치료사의 결혼상태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변수의 등분산 검정은 자기효능감($p=.304, p>.05$), 잔류의도($p=.396, p>.05$) 모두 p값이 .05보다 크게 나타나 등분산이 가정되었다. 결혼상태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t=-1.117, p>.05$), 잔류의도($t=-5.183, p>.05$)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술심리치료사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 잔류의도는 집단 간 모두 평균값이 비슷하게 나타나 결혼상태에 관계없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심리치료사의 결혼상태에 따른 주요 변수 자기효능감, 잔류의도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술심리치료사의 결혼상태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Analysis of differences in key variables according to marital status of art psychotherapists

Factor name		Frequency (N)	Average (M)	Standard deviation (SD)	Equal variance test (p)	t/p
Self-efficacy	Single	83	4.15	.59	.304	-1.117
	Married	99	4.24	.52		
Intention to remain	Single	83	3.97	.51	.396	-1.395
	Married	99	4.08	.57		

* $p<.05$, ** $p<.01$, *** $p<.001$

3.4.3 예술심리치료사의 근무경력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예술심리치료사의 근무경력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변수의 분산의 동질성 검정은 자기효능감($p=.906, p>.05$), 잔류의도 ($p=.071, p>.05$) 모두 p 값이 .05 보다 크게 나타나 등분산이 가정되었다. 근무경력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F=5.818, p<.01$), 잔류의도 ($F=6.428, p<.01$)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기효능감, 잔류의도 요인은 1년-3년 미만 집단과 3년-5년 미만, 5년 이상의 집단 간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3년-5년 미만 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예술심리치료사의 근무경력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Table 9.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Key Variables by Working Experiences of Art Psychotherapists

Factor name		Frequency (N)	Average (M)	Standard deviation (SD)	Equal variance test (p)	t/p
Self-efficacy	1-3 years(a)	54	3.99	.57	.906	5.818** a<c,b
	3-5 years(b)	75	4.30	.51		
	5 years or more(c)	53	4.28	.55		
Intention to remain	1-3 years(a)	54	3.82	.52	.071	6.428** a<c,b
	3-5 years(b)	75	4.16	.49		
	5 years or more(c)	53	4.06	.60		

* $p<.05$, ** $p<.01$, *** $p<.0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예술심리치료사의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자기효능감, 잔류의도)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를 살펴본 결과 예술심리치료사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 자기효능감, 잔류의도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예술심리치료사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 잔류의도는 모두 남자보다 여자가 더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변수의 등분산 검정은 자기효능감, 잔류의도 모두 p 값이 .05보다 크게 나타나 등분산이 가정되었다.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잔류의도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술심리치료사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 잔류의도는 모두 남자보다 여자가 더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술심리치료사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 자기효능감, 잔류의도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예술심리치료사의 결혼상태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를 살펴본 결과 예술심리치료사의 결혼상태에 따른 주요 변수 자기효능감, 잔류의도 요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예술심리치료사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 잔류의도는 집단 간 모두 평균값이 비슷하게 나타나 결혼상태에 관계없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심리치료사의 결혼상태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변수의 등분산 검정은 자기효능감, 잔류의도 모두 p 값이 .05보다 크게 나타나 등분산이 가정되었다. 결혼상태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잔류의도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술심리치료사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 잔류의도는 집단 간 모두 평균값이 비슷하게 나타나 결혼상태에 관계없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심리치료사의 결혼상태에 따른 주요 변수 자기효능감, 잔류의도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예술심리치료사의 근무경력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를 살펴본 결과 예술심리치료사의 근무경력에 따른 주요 변수 자기효능감, 잔류의도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기효능감, 잔류의도 요인은 1년-3년 미만 집단과 3년-5년 미만, 5년 이상의 집단 간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3년-5년 미만 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예술심리치료사의 근무경력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변수의 분산의 동질성 검정은 자기효능감, 잔류의도 모두 p 값이 .05 보다 크게 나타나 등분산이 가정되었다. 근무경력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잔류의도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기효능감, 잔류의도 요인은 1년-3년 미만 집단과 3년-5년 미만, 5년 이상의 집단 간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3년-5년 미만 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 자기효능감, 잔류의도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예술심리치료사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 잔류의도는 모두 남자보다 여자가 더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예술심리치료사의 결혼상태에 따른 주요 변수 자기효능감, 잔류의도 요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예술심리치료사의 근무경력에 따른 주요 변수 자기효능감, 잔류의도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3년-5년 미만 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술심리치료사의 역할수행을 높이기 위해 자기효능감과 잔류의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 예술심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삶을 느끼는 자기효능감을 개인, 가족, 공동체 뿐만 아니라 소속한 곳에 느끼는 소속감,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남기를 바라는 잔류의도야 말로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는 강원도 심리상담센터 4곳을 중심으로 조사 지역 및 조사 대상, 방법의 한계가 있으며, 제한점이 있으므로 표본지역 확대와 비교 집단간 연구로 폭 넓고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심리치료사의 자기효능감과 잔류의도를 높일 수 있는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개발로 시스템을 형성하며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삶의 만족도를 현장에서의 실천적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C. A. Malchiodi, *The soul's palette : drawing on art's transformative powers for health and well-being*, p.224, Random House, 2002.
- [2] B. P. Seo, M. R. Park, *The positive effects of Integrated Arts therapy on blind students' social adaptability and mothers' mental health*,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Yong-in University, pp.24-42, 2020.
- [3] E. S. Lee, *The Effects of Workplace Spirituality and Emotional Labor of Art Psychotherapists on Job Burnout and Life Satisfaction*,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Dongbang Culture University, pp.49-59, 2021.
- [4] E. J. Kang, S. H. Moon, "Differences in Care Worker's Job Satisfaction and Service Quality According to Their Care Experience and Self-efficac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9, No.1, pp.333-344, 2018.
DOI: <https://doi.org/10.22143/HSS21.9.1.27>
- [5] Y. K. Lee, K. Y. You, "The Impact of Manager's Leadership Style at Middle level to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Mediator Effect of self-efficacy-", *The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Vol.18, No.2, pp.123-154, 2018.
DOI: <https://doi.org/10.35224/kapd.2018.18.2.004>
- [6] B. G. Yoo, *The Influence of Public Servants' Self Efficacy on Job Outcome*,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Gachon University, pp.7-19, 2020.
- [7] M. K. Kwak, *Effect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culture of elderly and disabled welfare facility workers on their intent to stay*,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Dongbang Culture University, pp.11-13, 2019.
- [8] S. Y. Jeon, J. W. Han, K. H. Park, H. N. Lee, "The effect of mentoring function perceived by nurses on job motivation and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result expectation",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2, No.3, pp.41-52, 2018.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18.12.3.041>
- [9] M. J. Yoon, *Effects of Hospital Organizational Culture and Work Environment of Nurses' Intent to Stay at the Current Hospital*,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p.7-14, 2018.
- [10] E. B. Kim,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Office worker's Job Autonomy, Protean Career Attitude, Occupational Self-efficacy, Mastery Goal Orientation and Proactive Career Behavior*,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pp. 67-71, 2020.
- [11] D. J. Lee, *The Effect of Job Embeddedness, Role Behavior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Care Workers on Intent to Stay*,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Dongbang Culture University, pp.51-54, 2020.

이 은 희(EunHee Lee)

[정회원]



- 2018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
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 학과
박사과정 재학중
- 2018년 8월 ~ 현재 : 가람심리상
담연구소 관리책임자 및 미술치료사

<관심분야>
예술심리

고 정 훈(JeongHoon Ko)

[정회원]



- 2014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
학원대학교 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뷰티예술학과
학과장

<관심분야>
콘텐츠융합디자인